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8월 20일(주일) 제1455호



푸른누리공동체의 인천 강화도 아웃리치.

끝없는 기쁨, 여름 아웃리치

해외 158개 팀, 국내 260개 팀 총 8,668명
선교사 위로, 어린이사역, 시설보수, 전도사역 등 펼쳐

그래서 더 뜨거웠던 202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종반(終盤)에 다다랐다. 성인공동체, 사역팀, 대학청년부, 차세대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58개 팀, 국내 260개 팀 총 8,668명이 참가했다(8월 18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는 탄자니아, 필리핀, 캐나다, 레바논, 베트남, 몰도바, 필리핀 등 32개국에서 이어졌다. 성인공동체 85개 팀 613명, 대학청년부 56개 팀 765명, 차세대

17개 팀 322명이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어린이사역, 시설보수, 전도사역 등을 했다. 난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도 발 벗고 나섰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농어촌교회를 찾아갔다. 농어촌교회 시설보수, 여름캠프, 새참 나눔, 어르신 섬김 등을 했다. M센터와 기관 등지에서 이주민 섬김, 블레스, 환경미화 등도 했다. 성인공동체 130개 팀 4,270명, 대학청년부 119개 팀 2,443명, 차세대 11개 팀 255명이 참가했다.

김재오 순장(동작공동체)은 “여름 아웃리치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했다”고 고백했고, 박지연 성도(인천온누리교회)는 “아웃리치에서 받은 끝없는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이라고 다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8월까지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을 8월까지 실시한다. 약 24만 명이 쓸 모기장이 필요하다. 난민촌에서 모기장은 말라리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모기장 판매 가격은 7천 원 정도이고, 말라리아 치료약도 필요하다. 일반약 어른 2천 원, 아동 1천 원이다. 신약은 어른 6천 원, 아동 3천 원이다.

남수단 난민정착촌에 모기장을 보내고 싶은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은 모기장 배포와 보건 및 위생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8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개강!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동체 개강예배
하베스트 집회, 러브소나타, 부흥축제 등 개최

2023 온누리공동체가 하반기를 개강했다. 8월 22일(화)부터 9월 15일(금)까지 공동체별로 개강예배를 드린다(개강예배 일정 하단 표 참고).

온누리공동체는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9월 2~3일 사르밈 프로젝트, 9월 28~30일 추수 하베스트(Harvest) 집회, 10월 7~8일 온누리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 10월 11~12일 러브소나타 미야기, 10월 18~20일 부흥축제, 11월 18~19일 엔젤트리, 11월 25일 임직식, 12월 2일 장로장립식, 12월 11일부터 이듬해 1월 19일까지 2023-20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8월 22일(화)	신용산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22일(화)	광명	비전홀	오후 6시
8월 22일(화)	김포	시온홀	오후 6시
8월 24일(목)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25일(금)	서빙고	한동홀	오후 6시
8월 25일(금)	서대문	시온홀	오후 6시
8월 26일(토)	일산파주	일산 비전센터	오후 6시
8월 29일(화)	웅산	한동홀	오후 6시
8월 29일(화)	특별한초대	비전홀	오후 6시
8월 29일(화)	노원	시온홀	오후 6시
8월 31일(목)	이촌	두란노홀	오후 6시
8월 31일(목)	동대문중앙	한동홀	오후 6시
8월 31일(목)	강촌	비전홀	오후 6시
9월 1일(금)	동작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1일(금)	중종로	한동홀	오후 6시
9월 1일(금)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9월 1일(금)	찬양사역	시온홀	오후 6시
9월 2일(토)	북누리	북누리 비전센터	오전 11시 30분
9월 3일(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오후 6시
9월 5일(화)	OCC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5일(화)	이수	한동홀	오후 6시
9월 5일(화)	강서	시온홀	오후 6시
9월 7일(목)	관악금천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7일(목)	가정사역	한동홀	오후 6시
9월 7일(목)	성북	비전홀	오후 6시
9월 8일(금)	한강	두란노홀	오후 6시
9월 8일(금)	여의도	한동홀	오후 6시
9월 8일(금)	마포	비전홀	오후 6시
9월 8일(금)	S브릿지	시온홀	오후 6시
9월 12일(화)	성동광진	강동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6시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8월 29일(화)	양재A	화평홀	오후 7시 30분
8월 29일(화)	분당A	드림홀	오후 7시 20분
8월 31일(목)	송파B	화평홀	오후 7시 30분
9월 1일(금)	강남D	화평홀	오후 8시
9월 1일(금)	Point5	온유홀	오후 8시
9월 2일(토)	도곡	화평홀	오후 5시
9월 2일(토)	강남C	드림홀	오후 7시
9월 2일(토)	서초A	과천로고스센터	오전 10시
9월 2일(토)	분당B	광림수도원	오후 5시
9월 3일(일)	푸른누리	숙명여고 강당	오후 3시 30분
9월 3일(일)	Bridge33+	하용조기념홀	오후 2시 30분
9월 5일(화)	양재B	화평홀	오후 7시
9월 5일(화)	경기A	온유홀	오후 8시
9월 5일(화)	과천의왕	드림홀	오후 7시 30분
9월 7일(목)	강남B	화평홀	오후 8시
9월 7일(목)	서초C	드림홀	오후 8시
9월 8일(금)	서초B	화평홀	오후 8시
9월 8일(금)	서초D	온유홀	오후 8시
9월 8일(금)	강남A	드림홀	오후 8시
9월 9일(토)	송파A	드림홀	오후 6시
9월 15일(금)	강남E	온유홀	오후 7시 30분

캠퍼스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9월 8일(금)	부천 연합	부천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9월 1일(금)	대전 연합	대전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7시 30분
9월 6일(수)	남양주 연합	남양주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7시 30분
9월 8일(금)	평택 연합	평택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9월 6일(수)	인천 연합	인천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9월 8일(금)	강동 동서울A	10층 사랑홀	오후 8시
9월 1일(금)	강동 동서울B	강동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9월 8일(금)	강동 동서울C	강동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8시
9월 9일(토)	양지 연합	김사무엘홀(본당)	오후 12시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기훈 목사

오늘 본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여덟 명 가족과 선택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죽고 물이 마르자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 얻은 사실이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노아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남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흐르는 사상 중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서 ‘살아남은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싸아르’라고 하고, 영어로는 ‘렘넌트(remnant)’입니다.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이 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해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란 모두가 우상숭배를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7천 명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불순종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와 갈렙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남은 자’란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세상 유희에 넘어가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그 멸망 가운데도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남은 자’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제거하려고 태어난 어린 사내를 모두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했을 때도 살아남은 모세가 ‘남은 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은 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죄는 개인이든 사회든 나라든 반드시 심판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의의 성품에 근거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와 심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 가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노아는 ‘남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생활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비난의 말과 경시의 눈초리가 있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사용해서 재창조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7장 13~15절을 보면 “들어갔습니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8장에는

두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창 8:18~19).

“방주에서 나왔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남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세상이 물로 망할 거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금방 믿어졌을까요? 세상이 물로 망할 거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 그런 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모아들이라”는 말씀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아의 신앙을 조롱했지만 그래도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세속적 가치관, 문화, 사상에 동화되지 않고 성경대로 신앙을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갔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말씀대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하며 삽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미숙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 것인지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선택하면 삶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쉬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갈등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대 사회를 사는 모든 성도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살리는 데 필요한 영적 마중물로 성도들이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서 세상을 지키는 믿음의 보루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야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욱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찾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을 때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때가 없습니다. 소망을 찾을 때가 없습니다. 교회가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구원을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것이기에 크리스천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대로 사는 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이 이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위장된 길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로 포장된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모조품 생명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문화가 되고,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행과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남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벧전 4:2).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도 ‘남은 자’로서 모든 크리스천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세속화 되지 않고 ‘남은 자’로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남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남은 자’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실에서 행해지는 문화혁명

러시아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의 참모이자 공산당 지도부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시도를 했다. 육아와 가사노동에만 묶여있던 여성을 일터로 끌어내 노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국가가 육아를 담당해서 공산당 이념을 일찍부터 가르치는 제도를 시험했다. 요람에서부터 이념 주입이 시작되는 것이다.

문화주도권(Cultural hegemony)을 주창한 안토니오 그람시는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성적 순결, 결혼의 언약, 거룩한 가정, 성경적 부부관계, 생육문화명령을 지키려는 문화가 공산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중심인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 성적 타락을 끌어내는 것이 그의 처방이었다. 성적인 타락은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이들이 교회를 떠나므로 인해 지역교회가 약화하고, 국가가 흔들리고, 결국 공산혁명의 기회가 온다는 주장이다. 여기서부터 성 혁명 이념이 생겨났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호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크제 등은 문화주도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억압받는 계층의 저항은 비록 불법적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의 개념을 설립했다. 마르크스는 억압받는 약자를 경제주체인 노동자와 농민으로만 한정했으나, 이들은 여성, 소수인종,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포함) 등 자신들을 지지할 소수자 그룹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아갔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화혁명은 유럽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났다. 중국의 국민당 정권을 타이완으로 쫓아내고 본토를 차지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생산 감소와 침체하는 경제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실각(失脚)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66년 마오쩌둥은 10대 청소년들을 홍위병으로 앞세워 자신을 비난하던 반대 세력들을 재판도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정권 유지를 꾀했다.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10년 동안 한 세대의 지식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서적을 불태우는 진시황의 ‘분서갱유’ 같은 문화혁명을 이루어 나갔다. 교사들이 사라진 자리에 공산당 이념을 주입함으로써 이전 중국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교사의 훈육을 억압으로 몰아붙이고,
교사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며,
부모의 간섭을 뿌리치게 만드는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일들이 자행되어 온 것이다.”

의 문화를 일소하고, 공산주의 문화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모방해서 유럽의 대학생들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강령을 걸고 일어난 68혁명(1968년 5월 프랑스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연합해 벌인 대규모 사회변혁운동)은 성적 자유를 매개로 대학생들을 결집해서 보수집권 세력을 깨뜨리려는 신마르크스주의 성 혁명의 시작이었다.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우리의 교육과정 속에 뿌리내린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나 다른 성 혁명 이념들에 의해 의미가 바뀌어 청소년에게도 성관계와 그 상대 선택,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결정, 성관계 결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여부 등 성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사춘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이때부터 남성의 정소와 여성의 난소는 각각 성호르몬을 왕성하게 생산 및 분비하기 시작한다.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이차 성징이 발달하고,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도 증가한다. 이 시기에는 성적인 욕구를 왜 절제해야 하는지, 그 욕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소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가르쳐서 자제력 있는 성인으로 길러야 한다. 이들에게 잘못된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가르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위험한 짓이다. 성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은 성적 호기심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내기 위해 ‘성적 자유’라는 달콤한 미끼와 잘못된 인권의 개념을 주입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지금은 저지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이 이 조례에 들어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더 많이 유입될수록 이를 방어할 힘이 약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10여 년 이상 부모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학교에서 문화혁명이 조용히 진행돼 왔다.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교사의 훈육을 억압으로 몰아붙이고, 교사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며, 부모의 간섭을 뿌리치게 만드는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일들이 자행되어 온 것이다. 현 상황을 일부 잘못된 학부모, 학생, 교사의 분쟁으로 보는 것은 핵심을 놓친 지엽적인 해석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제도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문화혁명의 문제다. 이것을 그냥 둔 채 다른 입법 혹은 조례의 개정 운운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조례의 폐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사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게 만드는 길로 돌아가는 게 해결책이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도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가진 인간이다. 교육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경제적 불균형

관대함과 감사함, 자족함과 검소의 훈련

김지혜 집사
(온누리세계관학교)

흙수저와 금수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누구는 흙수저이고, 누구는 금수저이다. 금수저 때문에 흙수저는 소외감을 느낀다. 남성들이 직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억울하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기회를 독점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약자와 강자, 선과 악을 나누는 이야기에 쉽게 고개를 끄덕인다. 강자를 적대시하기도 하고, 약자의 이야기에는 편

을 들어야 한다는 정서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흑백으로 선명해 보이는 듯한 설명과 편을 나눔으로써 얻는 위안이 과연 성경적일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신 이유가 그들이 부자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전 지구적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해 우리는 가난해야 하는지, 부유해야 하는지 이분법적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존 스토틀는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이 질문에 답한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분명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과 같은 일부 사람을 전적으로 자발적인 가난한 삶으로 부르시지만,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유한 채 있어야 하는가?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 아니라 교만과 물질주의의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우리는 관대하고 자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려라”(딤후 6:18)고 말하며 관대함을 권고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웃을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관대할 수 있을까?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기아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구호단체 어린이 합창단의 평화와 난민 구호를 위한 찬양의 하모니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의 관대함을 따르기에는 턱없이 웅졸하고,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만다.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 아주 간단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Love)’은 기독교적인 사랑(Charity)이며, 이는 감정의 상태(linking/affection)가 아니라 의지(will)의 상태이다. 이러한 의지적 결단은 곧 “주 너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대함에 자족함을 추가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것에 불만을 느낀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딤후 6:6-8)고 말한다.

자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검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욕주의와 같은 창조주의 선한 선물을 부인하는 주장이나 규칙에만 얽매이는 바리새주의는 경계하고, 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바른 검소함의 원리는 국제세계복음화대회를 끝맺으면서 채택한 로잔 언약에서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선포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유익과 탐욕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도의 표지들인 자기희생과 관대한 베품의 성경적 가르침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검소한 삶의 방식이라는 로잔운동의 역사적 요청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케이프타운 서약 중)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2024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독교적 사랑인 관대함을 나타내기를 소망한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함과 자족함이 넘치고, 이를 위한 검소의 훈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가정예배로 풍당!

가정예배 5문(問) 5답(答)



가정예배는 부모를 통해 자녀가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축복의 장(場)이다. 많은 부모님이 이 귀한 시간을 잘 세워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번 시간

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가정예배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가정예배는 얼마나 자주 드려야 하나요?”이다. 회수는 정해 줄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매일 드리든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정기적인 시간의 구별이 중요하다. 가정예배의 핵심은 ‘신앙적 고백이 있는 정기적인 예배’이다.

가정예배 주기를 자녀의 연령에 맞춰 추천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매일, 중·고등학생이라면 주 1회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한다. 가정예배 주기가 길어질 때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가족만의 영적인 리듬을 만들면 좋다. 예를 들면 성경통독, 개인 기도, 말씀 암송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신앙 활동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영적인 리듬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모일 수 없는 가족은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나요?”이다. 가족이 다 모이면 물론 좋겠지만, 다 모이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가족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모일 수 있는 가족만 모이면 된다. 우리 집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집에 있는 날이 많아야 3일이다. 그러면 아내가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은 그 자리에 없는 아빠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아빠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
빠를 보호해주세요요”라고 잊지 않고 꼭 기도하
다. 아빠가 없는 예배는 단지 아빠의 부재로만
기억될까? 아니다.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기도하며, 영적으로 한
팀이 된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들어 온 가족
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다.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리가 된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한 경우도 있다. 취직, 군대, 유학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끼리 가정예배 시간을 약속으로 정하면 된다. 매주 토요일 밤 9시를 가정예배 시간으로 정한 가족을 생각해 보자. 아버지가 금요일 저녁쯤 자녀들에게 “내일 가정예배 시간에 무슨 기도해줄까?”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듣는다. 그리고 토요일 밤 9시에 그 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된다.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

세 번째 질문은 “가정예배는 어떤 형태로 드려야 하나요?”이다. 가정예배는 어떤 형식을 구현해 내는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형태라면 무엇이든 좋다.

어느 날 아들이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다
고 해보자. 응급실 구석에 가족이 모여 하나님
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
도 가정예배다. 자녀의 개학을 앞두고 온 가족
이 모여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도 가정예배다. 그렇게 신학기가 시작되고 만
난 자녀의 친구들과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가
정예배를 통해 얻은 기도의 열매가 되는 것이
다. 자녀의 학교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밖
에 없다. 가정예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가정의 상황에 맞게 형태를 찾아가면 된다.

네 번째 질문은 “자녀의 나이 차이, 누구에

게 맞춰야 하나요?”이다. 유치원 자녀와 나누는 하나님 이야기와 고3 자녀와 나누는 하나님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그럴 때는 따로 드리면 된다.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예배가 가족의 정기적인 리듬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려보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가정예배가 가족의 약속이 된다면 연령이 많이 달라도 불편하지 않고,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다. 오히려 나이 차이로 인해 다양한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듣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질문은 “불신자 가정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요?”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면적을 넓혀줘야 한다. 어릴 때는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순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을 자리에 앉혀만 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신앙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여보, 내가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라고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꾸준히 전하다 보면 어느새 불신자 가족도 신앙을 가진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더 나아가 가족들에게 기도제목을 물어보면 좋다.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요즘 어려움이 있어? 내가 기도할게”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어느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도제목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가정예배의 첫걸음이다.

* 이 글은 기독교OTT '풍당'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 3편'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하나님의 선물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8월 16~17
일 본문 사도행전 22~23장

1.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행 22:17-22)
- ①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
 - ②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③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너게 회개하며 돌아올 것이다”
 - ④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2.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공회(법적, 종교적인 일을 의논하기 위한 모임,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던 최고 기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기를 넘길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행 23:6~11)
- ①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 도망침
 - ②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함
 - ③ 많은 비를 내려 모여 있는 사람들이 떠날리게 함
 - ④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함

차세대 여름캠프 간증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번 여름캠프에서 친구들, 선생님이라 함
 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 여름캠프에
 서 부른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정말 좋
 았어요. 그리고 코너학습을 통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 방법과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방
 법을 배웠어요.

또 여름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래요!”

저는 여름캠프에 처음 가 보았어요. 가기 전부터 정말 기대되었어요. 여름캠프에서 물놀이 활동이 제일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이번 여름캠프에서 배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이번 여름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알고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강예은 학생
(서빙고 윤년부)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여름캠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웠어요.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코너학습도 재미있었어요. 성경 암송은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외웠어요.

예배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하고 좋았어요.

최유은 학생
(서빙고 유년부)



맛있는 말씀 해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요일 4:10~11)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어 한다. 실패하는 삶보다는 성공하는 삶이 좋다. 그런데 모두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재력, 명예, 권력, 외모 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모두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의지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최고로 성공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처럼’은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상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비기독교인들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실천 중에 오래 참음(인내)을 실천하기를 권면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다’로 마친다(고전 13:4-7). 총 15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모든 것’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 믿는 것과 바라는 것이다.

믿는 것과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당연히 오래 참아야 한다. 상대방의 이해 되지 않는 것

까지 믿어지려면 오래 견뎌야 한다. 또 바랄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도 계속 유지하려면 오래 참아야 한다.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면 모든 죄악과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아니 그 결점들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내심이 부족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지 열정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바로 가족이다. 가족은 우리의 이웃 중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깝고, 돕는 사람으로 붙여 주셨다. 그렇기에 가장 허물을 많이 볼 수 있고, 서로의 민낯을 보는 관계다. 오래 보고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면 서 원수 같은 대상이 바로 가족이다.

사람을 100m 떨어진 곳에서 볼 때보다 1m에서 볼 때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가족은 허물과 단점, 결점들이 서로에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쉽게 감정을 소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주고받아 사랑하기 더욱 어려운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이웃인 가족을 인내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로 소망한다.



안사무엘 목사
(강동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유럽 최고의 도시 로마를 품은 비전

8월 21일~27일
<사도행전> 24:24~27:26



성을 잃지 않았다. 권력자 앞에서 담대히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는 바울, 로마 선교를 품고 당당히 가이사(로마 황제) 앞에 상소하는 바울을 묵상하자.

▶잔인한 폭군이었던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메시지를 두려워한다. 한편 뇌물을 받으려고 바울을 자주 불러 대화하며 그를 구금해 둔다. 2년 후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한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유대인들이 살해 음모를 꾸미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한다. 예루살렘에 가서 심문을 받게되는 베스도의 질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활용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묵상포인트 1:

세상 지위와 권력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총독 교체로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피고인이지만,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

성을 잃지 않았다. 권력자 앞에서 담대히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는 바울, 로마 선교를 품고 당당히 가이사(로마 황제) 앞에 상소하는 바울을 묵상하자.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방문한 아그립바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 바울을 세우며 죄가 없다고 설명한다.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자 바울은 자신이 골수 바리새파 유대인 출신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소당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보다 밝은 빛에 앞드러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을 간증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아그립바 왕은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에 석방되지 않고 자신의 소망대로 로마로 향한다.

묵상포인트 3: 바울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되지만, 이는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의 성취다. 항해 중에 만난 광풍으로 인해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서 바울 한 사람만이 구원의 소망을 전한다. 광풍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바울이 전하는 소망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묵상하자.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한다. 바울이 항해의 위험을 경고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강행한다. 결국,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태풍)을 만나고, 큰 풍랑 속에서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진다. 이때 바울은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로마로 가는 자신의 사명과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평안을 전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재판받는 과정에서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피고인이지만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자. 바울처럼 어디에서든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위압을 갖춘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바울은 박해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복음을 전했다. 전도할 때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 주려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 진솔하게 나누자. ▶모두가 구원을 포기한 상황에서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전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이모를 위해서!

저희 이모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이 모께서 얼마 전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을 잘 마쳤는데 후유증이 심해서 걷는 게 불편합니다.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가 몸에 맞지 않아서 먹을 때마다 속쓰림과 위통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손길로 만지셔서 이모의 무릎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모가 진통제 없이 생활하도록 기도해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이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이모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모가 건강과 마음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모와 이모 가정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건강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이 이모를 힘들게 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모가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익명의 성도

*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농어촌선교팀·SNS청년부 연합
신의도, 하의도

SNS청년부 M&M그룹의 다락방 중에서 내가 속한 다락방이 가장 적은 인원로 아웃리치에 참여했다. 우리 다락방은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다락방이다. 청년부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마음이 위축되었는데, 농어촌선교팀(성인공동체)과의 연합 아웃리치가 큰 힘이 되었다. 우리의 웃음소리마저 귀엽게 보주시는 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뜨거웠던 여름 햇살보다 열정적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한 감동을 주었다.

우리는 하태교회의 쓰러진 종탑을 세우고, 외벽을 칠하는 페인트 사역을 했다. 신의중앙교회에서는 한방치료사역과 피부미용사역을 했다. 하의 대리교회와 후광교회에서의 이미용사역, 각 사역지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전도사역, 모든 사역에 에너지를 공급해준 식사팀의 수고도 있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역에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우리가 준비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합 아웃리치팀이 현지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 역시 경력직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섬겼던 사역은 이·미용 봉사였다. 객션혜 팀장님을 중심으로 토요일 12시간, 주일 3시간을 합쳐 총 15시간 사역했다. 주민 45명에게 시술을 해드렸다. 정신없이 이·미용 봉사



농어촌선교팀과 SNS청년부 연합 아웃리치팀이 신의중앙교회에서 한방치료사역을 하고 있다.

를 하고 나서 사역을 돌아보았다. 세상의 일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고, 사랑의 통로로 서게 하시기에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아웃리치에는 변수가 많아서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현지와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아웃리치를 자신의 사역처럼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현지 성도들,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이 계셨기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함께 할 사람과 지역을 선물해주시고, 그 안에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보내서 참 감사했다.

우리의 걸음과 손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심긴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아웃리치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다.

아웃리치를 다녀올 때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사랑을 전하러 간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 모두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농어촌선교팀과 청년부 연합팀을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정희평 팀장님, 김종문 총무님, 전홍수 회계님께 감사하다. 강은수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이영근 장로님의 경륜의 리더십, 김우호 장로님의 사랑의 리더십이 덕분에 더욱 풍성한 아웃리치였던 것 같다. 또 청년부와 농어촌선교팀의 가교역할을 해주신 손결 팀장님, 신보미 다락방장님 덕분에 모두 하나 되어 사역할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팀원들은 모두 처음 뵙는 분들이고, 장소도 낯선 곳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와본 것처럼, 오래 만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예비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조문진 자매
(SNS청년부)

인천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

예배와 중보기도로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첫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근처 호텔에서 보내고, 다음날 람퐁으로 들어가는 국내선 항공기를 탔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추주엽 선교사님과 디나 목사님이 우리 팀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기독교 병원인 ‘Mardi Waluyo Hospital’을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집을 풀었다.

첫 번째 사역인 위스마카시 공동체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주먹밥과 화채를 만들어 먹으면서 교제했다. 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아이들이 한국말로 ‘아주 먼 옛날’ 찬양을 불러주었다. 그 찬양 소리가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줘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생활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표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밝고 씩씩했다.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졌다. 위스마카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을 세 번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Mardi Waluyo Hospital’ 환자들을 만나 찬양과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국민



인천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 아웃리치팀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92%가 무슬림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써 만나고 계시고,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에 놀랐고,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날 ‘Mardi Waluyo Hospital’ 간호사님이 중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와 약 처방을 하는 사역을 따라갔다.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보기도를 해드렸다. 거절할 줄 알

았는데 모두 기쁘게 감사해하셨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 중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계기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사역은 사마리아 미니스트리였다. 기독교 여성 예배인테, 인도네시아 람퐁 땅에 이렇게 간절히 예배드리는 여성들이 있음을 보았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생각났다.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 땅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는 삶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많았다. 주일날에는 GKSBS교회를 방문해서 예배와 간증을 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에는 ‘Mardi Waluyo Hospital’ 임직원들과 예배와 간증을 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있다. 뜨디뚝디신학 중고등학교 방문이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사역인 위스마카시 공동체 아이들과 다르게 이 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어둡고,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선생님들은 봉사자로 온 우리 팀에게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기보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 급급했다. 그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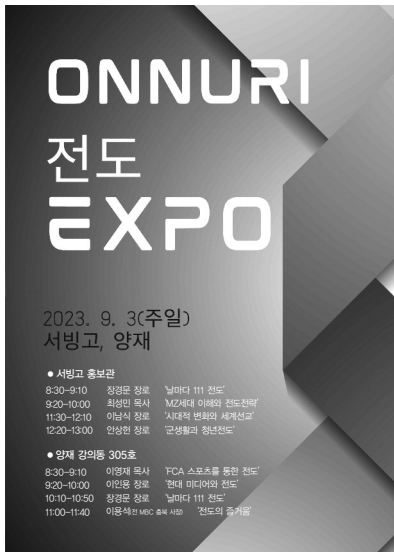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선교 방법이 아니라 온전한 선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인도네시아에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왔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웠다.



박서영 자매
(인천온누리교회)

2023 전도엑스포 개최

9월 3일 오전 8시 서빙고 이천만광장, 양재 로비



전도사역본부에서 ‘2023 전도엑스포’를 개최한다. 9월 3일(주일) 오

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앞 광장에 전도 부스를 설치한다. 전도 부스에서는 전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 등을 할 예정이다.

전도엑스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과 사명을 갖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전도학교, 전도폭발, 병원전도, 군선교, 맞춤형 전도, 호스피스, 열린예배, 전도콜센터 등 전도사역본부 산하 사역팀이 모두 참가한다. 전도 관련 세미나도 열린다. 서빙고 홍보관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장경문 장로 ‘

날마다 111전도’, 최성민 목사 ‘MZ세대 이해와 전도전략’, 이남식 장로 ‘시대적 변화와 세계선교’, 안상현 장로 ‘군생활과 청년전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양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강의동 305호에서 세미나를 한다. 이영재 목사 ‘FCA 스포츠를 통한 전도’, 이인용 장로 ‘현대 미디어와 전도’, 장경문 장로 ‘날마다 111전도’, 이용석 전 MBC 충북 사장 ‘전도의 즐거움’을 주제로 강의한다.

전도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전도콜센터 전화(02-3215-3377)로 문의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간증 프로그램 ‘어메이징 그레이스’

매주 금 유튜브, 기독교 OTT ‘풍당’, TV CGN 채널

CGN의 간증 프로그램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생생한 선교사들의 간증을 시청할 수 있다. 인도 국경 히말라야 지역에서 빈민 사역을 하는 곽아브라함, 신사라 선교사,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해 40여 년 간 사역하고 있는 요시다 고조 목사, 사역 1년 만에 파킨슨병을 진단받 고도 10년 동안 사역을 이어오고 있

는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매주 금요일 유튜브 CGN 채널과 기독교 OTT ‘풍당’, TV CGN 채널(IPTV : KT olleh 237번, SK Btv 292번, LGU+ 271번, 케이블TV: LG HelloVision 288번, D'LIVE 304번, 현대 HCN 550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개강

9월 13일부터 매주 수 오전 10시 50분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한다. 9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13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이다. 시니어아카데미는 초고령사회를

사는 시니어들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성경 속 시니어들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남은 생애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문의: 010-9130-0692

온누리 전도학교 참가자 모집

온누리 전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온누리 전도학교는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에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 전도학교 온라인 과 정도 있다.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열린다.

양재 온누리 전도학교는 9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서빙고 9월 24일까지, 양재 9월 21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서빙고(010-9724-2258), 양재(010-3010-0156)

두란노 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 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9월 27일은 추석으로 인해 휴강한다. 수강신청은 9월 5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 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이야기 기·도·제·목

- 8월 20일(주일) 러브소나타 ‘이야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 8월 21일(월) 이야기(센다이) 지역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 8월 22일(화) 말씀 선포하실 이재훈 담임목사님에게 지혜와 목상이 충만하기를
- 8월 23일(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역팀 위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 8월 24일(목) 이야기의 일본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 8월 25일(금) 러브소나타에 참가하는 봉사자들이 겸손하게 섬기기를
- 8월 26일(토) 일본의 차세대 크리스천이 성령 임재를 통해 불같이 일어나기를

NGO 더멋진세상 단기 사역자 모집

우간다, 말라위 각 1명, 모리타니 2명

NGO 더멋진세상에서 단기사역자를 모집한다. 8월 23일까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duna30@abetterworld.or.kr)로 접수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 단기사역자는 우간다 1명, 말라위 1명, 모리타니 2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성도, 영어 업무 수행 가능한 성도(우대), 행정 및 회계 업무 경험이 있는 성도(우

대), 남자는 병역필 혹은 면제자인 성도이다.

NGO 더멋진세상 단기 사역자로 최종 선발되면 TP42기 교육과 NGO 더멋진세상 자체 훈련을 받고, 올해 10월 이후 파견된다. 1년 이상 사역하는데, 기간은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70-4402-3023

‘Why Mission?’ 참가자 모집

9월부터 서빙고, 양재, 서산 개강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9월 개강한다. ‘하나님 나라, 그의 영광 그리고 선교’, ‘구약에 나타난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서빙고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 양재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0분부터 두란노홀, 서산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서빙고 9월 23일까지, 양재 9월 9일까지, 서산 9월 10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 서빙고와 양재는 5만 원, 서산은 없다.

문의: 서빙고(010-6247-3504), 양재(010-3652-5896), 서산(010-5383-1104)

한국어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9월 2일부터 온라인, 양재 두란노홀

한국어 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8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의는 9월 2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주와 10주 과정은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6652-3596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8월 26일~11월 18일 매주 토 도곡교육관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도곡교육관(숙명여고) 2층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0만 원(식사비 포함)이다. 선교사는 50%, 부부 동반 신청하면 회비를 25% 할인해준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는 하나님 이 주신 달란트, 직업, 은사로 열방

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과 협력하며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훈련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 보건의료, 농업, 교육, 이주민·난민선교 등 다양한 선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인사역자들의 강의를 이어질 예정이다.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필드리서치도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010-8932-9901), 양재(010-2270-2800)

130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

130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추석 주간에는 휴강한다. 수강신청은 9월 3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선착순 24가정을 모집한다. 회비는 가정당 35만 원이다. 동반자

녀는 1인당 5만 원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 부부관계 개선’, ‘부부대화, 가계도’,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4427-5025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Los Angeles, CA 90057, USA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8503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안재 김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오세아니아			● 아키토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8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중동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아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일본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2길 61 2층			● 해외 온누리교회 ●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동남아시아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미사부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nsaitbasi Chuuku Osakasi Japan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미북부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 양지			● 포틀랜드								
			● 로스앤젤레스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